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들의 수업성찰을 돕는 '교수법 CLASS' 프로그램



민혜리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hrmin82@snu.ac.kr

현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이사
전 한국교육컨설팅학회 회장

관심분야: 대학수업컨설팅, 교수법, 교육데이터분석

「공과대학 교수법 CLASS」는 공과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강의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과대학의 제안으로 2006년 2학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이후 공과대학 정년임용 신청 예정자는 반드시 공과대학 교수법 CLASS를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과대학과 교수학습개발센터간의 협력사업 모델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모델을 학내 다른 단과대학에도 확대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이 모델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고, 현재 다른 단과대학으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과대학 교수법 CLASS」 프로그램의 목표 및 효과

「공과대학 교수법 CLASS」는 비디오 촬영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비디오 촬영을 통한 강의 분석은 강의자에게 강의의 실체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강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촬영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관찰하게 되면 교수자는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후 이 촬영 영상을 토대로 수업컨설팅이 진행된다면 교육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교수자 자신에

게 필요한 교육적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강의 컨설팅 종료 후에는 자기평가와 참석자 좌담회가 이루어지는데, 동료 교수들과 교육에 관한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프로그램 내용 및 현황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와의 개별적인 컨설팅을 통해 강의 개발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강의 진행과 평가까지 포괄하는 전(全)과정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강의 촬영 및 분석, 자문, 학생 피드백 등의 일련의 흐름을 따라 진행된다. 신청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목 중 한 과목을 정하여, 컨설팅을 받게 된다. 또한 수업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한 교수법 워크숍에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석자들의 소감

전기/컴퓨터공학부 홍 교수님**

2009년에 처음으로 강의 촬영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상 외로 무난하게 촬영은 진행되었고, 제 강의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표 1. 공과대학 교수법 CLASS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강의 컨설팅 신청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담당자	
1단계	강의 촬영	개별 수업 촬영, CD 영상으로 제공
	학생 설문	학생대상 강의평가 설문 실시, 분석자료 제공 및 자문
2단계	강의 분석 및 자문	강의 촬영한 영상과 학생들의 강의 평가 설문을 분석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 전문가와 아이디어 및 교수법 논의
3단계	프로그램 참가자 좌담회(선택)	강의 컨설팅 종료 후 참석자 좌담회(선택)
이수증 발급	센터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해당 학과에 제출)	

질문과 대답을 통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이해도 점검 요령, 그리고 마치 드라마의 예고편과 전편 줄거리를 보여 주는 듯한, 강의 전후 5분간의 강의 요약 요령 등 제게 도움이 되는 여러 교수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2010년에는 컨설턴트의 제안으로 한 번 더 강의 촬영과 자문을 받게 되었는데, 1차 교수법

과정에서 알게 된 방법을 잘 활용한 결과인지 두 번째의 강의 자문에서는 컨설턴트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수법 관련 자료와 실제 강의 자문으로 직접 경험한 CTL 교수법의 덕분으로 100명 정도의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강의 전공 교과목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공대 우수강의상을 2008, 2009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광도 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CTL에서 제공하는 교수법 관련 과정을 잘 활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대에 임용되는 신입 교수님들은 신입 교수 워크숍에서 접하는 교수법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에 대한 수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강의 촬영과 자문 등의 CTL의 교수법 과정을 꼭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2. 참가 인원 및 만족도

연도	참가인원	만족도
2006학년도 2학기	22	-
2007학년도	23	-
2008학년도	13	-
2009학년도	5	-
2010학년도	9	-
2011학년도	9	-
2012학년도	10	-
2013학년도	13	-
2014학년도	5	-
2015학년도	4	-
2016학년도	10	4.89
2017학년도	14	4.93
2018학년도	11	5.00
합계	148	4.94

화학생물공학부 송 교수님**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인지 몰라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승진의 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교수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부교수에서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다 할 거면 이걸 부교수에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용 초기에 실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교수들은 10년 정도 이미 강의를 많이 해서 자기 스타일이 굳어져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고치는 것 자체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고치는 거하고, 이미 내 몸에 굳어져 있는 상태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좀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임용초기부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건축학과 이** 교수님

저는 촬영하고 점검받고 바로 몇 가지 개선해봤는데 실제로 워킹하더라고요. 아 이게 괜찮구나. 나름대로는 제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 입장에서만 정말 강의를 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학생 입장에서 본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공학부 서** 교수님

찍어놓고 보니까 애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제 발음이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는데, 올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보니까 발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불분명하고 말의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좀 관리를 해야겠구나' 제 생각에는 그런 교수님이 몇 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찍은 후에 그 다음 학기에도 선생님들께 보내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전기/정보공학부 이** 교수님

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좀 좋네요 그렇게 써놓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내가 졸립다는 뜻인가' 했는데 실제로 제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목소리가 모노톤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플랫폼하게 강의를 한다는 게 보이니까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대학의 교수들이 교수법 향상에 관심이 있다 하여도 연구활동과 강의준비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교수법 개선에 시간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정교수 승진규정에 수업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방식에 대해 프로그램 초기에는 반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실행을 통해 공과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일상적인 승진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승진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 많은 교수들은 교수자로서의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스로는 미처 깨닫지 못한 다양한 교육적 요소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의 성과나 의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그간의 대학 내 교육현황과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업개선을 위한 정보제공의 측면이 보강되어야 하며, 새롭고 혁신적인 교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수업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